

기부문화 '톡톡 튀네'

결혼 1% 나눔·고속도로 통행료 남은 동전 모으기 등 다양

연말을 맞아 세밀은 온정이 오가는 가운데 시민들의 기부 문화도 다양해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도로에서, 인터넷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색적인 모금 운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금 단체들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구제군 냅비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자선 냅비를 도입했다. 교통 카드를 갖다 대

기만 하면 800원씩 성금을 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광주 구제군의 경우 지난해 총 모금액 1천 200만원 중 200만 원이 교통카드 후원금이었다.

광주 구제군의 이기풍(52) 사관은 "지폐 등 현금을 내지 않아도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 있어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냅비를 선호 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홍석·이하 전남모금회)는 1~31일까지 '동전 하나 사랑 더하기'라는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목포, 순천 등 3곳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모금 운동을 벌인지 10일만에 5천여 만원에 이르는 동전이 모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천100여 만원이 모였던 것에 비하면 50%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남모금회 측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남은 동전을 기부하는 방식에 대해 운전자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 목표 금액 1억 1천만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는 광주 5천여 만원, 목포·순천 각각 2천여 만 원 정도로, 당초 목표액인 1억원에는 조금 미쳤다. 성금은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과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일찍부터 나눔 운동을 펼쳐온 '아름다운 재단'은 '주제가 있는 1% 나눔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금연을 시작한 사람들이 담배값을 기부하는 '금연 1% 나눔', 예비 부부들이 결혼 비용이나 결혼축의금 등의 1%를 나누는 '결혼 1% 나눔', 자선 및 공익단체를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 후 지정된 단체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 1%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온라인 기부도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는 해피빈(http://happybean.naver.com)은 온라인 기부자 30만 명이 가입했다. 간단한 클릭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지난해 7월 설립된 후 네티즌과 기업의 성금 등 38억 원이 모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니 흑파인 '싸이월드'의 싸이투게더(cytogther.cyworld.nate.com)는 사이트 내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는 도토리를 회원의 이름으로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도토리 1개(100원)로도 가능해 부담이 적고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김정수(39)간사는 "과거엔 여유가 있어야만 남을 도운다고 생각했다면, 근래에는 기부에 대한 의식이 확산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연말에만 기부의 70%가 물리는 등 기부의 생활화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전남 공동모금회 회원들이 순천톨게이트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동전 하나 사랑 더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종교·칼럼



윤빈호

결혼이민자
가정을 바라보며…

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가정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 연령기와(평균 남성 30세, 여성 27세) 이혼의 증가(2006년 12만 9500건), 그리고 저출산(세대당 1.08명)은 한국 사회를 흔드는 불안 요소다. 또한 해마다 증대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농촌 총각의 36%가 국제결혼) 다인종과 다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곡성군에도 113가구의 결혼 이민자가 정이 있다. 이 가정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뿐만 아니라 대가족 제도, 남성 우월주의, 가난, 폭력들과 같은 것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그들 가정에서 양육될 2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혼혈아에서 코시안이라는 용어만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화와 다인종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미래 언젠가 있을 문제가 아니라 삶은 이미 시작된 미래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바로 이런 세계화 그리고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준비하는 보금자리다. 우리가 그들의 가정을 보다 따뜻이 돌보아준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빨리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들 가정에도 태초에 하느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며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축복하신 내용이 그들 가정에도 충만하게 되길 기원한다.

(곡성성당 주임신부)

단신

광주 쌍촌동 시영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 만들기 바자회'

○…쌍촌동 시영사회복지관(관장 남국희)은 16일 오전 10시 저소득집 지역 아동을 위한 '작은 도서관 만들기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반찬 등 먹을거리와 재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종이접기·비즈공예·리본 공예 체험 및 판매 행사도 함께 열린다.

아동 전용 도서관인 '작은 도서관'은 내년 3월 복지관 3층에 개관할 예정이다. 문의 061-362-1004

곡성군·결혼이민자 협의회
'결혼이민자 가족(부부) 교육'

○…곡성군과 결혼이민자 지역협의회가 15~16일 이를 간 지역인 가족 호텔에서 '결혼이민자 가족(부부) 교육'을 실시한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전남대 고은 교수(사법 대 특수교양과)는 '가족이라는 모빌 속에서의 나·이중 문화 가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61-362-1004

새해 아침을 고요한 산사에서

송광사·대흥사 등 '새해맞이 템플 스테이' 운동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다. 이번 연말에는 산사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순천 송광사 등 전국 16개 주요 사찰은 12월 31일~1월 1일 '새해 맞이 템플 스테이'를 운영한다. 참선 수행을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사찰의 범종을 타종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해남 대흥사는 제하 탄종식, 불자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15일~1월 21일 '참선 수련회'를, 1월 25일~1월 30일 경전읽기 수련회를 실시한다.

송광사는 신도단체 '송광사사람' 하는 사람들의 모임'(송사모)과 함께 해맞이 산사체험을 마련했다.

송광사 회주(會主) 법흥 스님의 법문, 조계산 대장봉 해맞이 등반, 성보박물관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해남 미륵사 7관에 새해 맞이 템플 스테이를 체험 할 수 있다. 영화 상영, 재야의 종 타종, 떡국 만발 공양, 달마산 등 반등 암찰 일정으로 채워져 있다.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이라면 반드시 방한복을 챙겨가야 한다. 또 대부분의 사찰이 아침 등산을 일정에 넣고 있는 만큼 등산화나 손전등 등 준비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사이트(www.templestay.com)나 템플 스테이를 실시하는 각 사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2007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사찰

지역	사찰명	침기비	전화번호
광주	김사사	2만원	041-857-8921
경주	골골사	3만원	054-744-1689
원주	구룡사	3만원	033-732-4800~5
부안	내소사	1만원	063-583-3035
해남	대흥사	3만원	061-535-5775
광주	미륵사	3만원	041-841-6226
해남	미륵사	3만원	061-533-3521
보은	법주사	7만원	043-543-3615
부산	법주사	3만원	051-508-3122~5
동해	심광사	3만원	033-754-7676
순천	송광사	3만원	061-755-0107~9
예산	수덕사	3만원	041-337-6565
강진	연동국사원	5만원	032-937-7033
광주	영평사	4만원	041-857-1854
영광	용문사	3만원	031-732-3797
고양	흘목사	4만원	02-381-7970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 1관 그해여름(124)
- 2관 싸이보그지만 괜찮아(124)
- 3관 MR. 로빈 고시기(124)
- 4관 미녀는 괴로워(124)
- 5관 해비리기(154) ◆지스트 프레드(154)
- 6관 광주국제영화제 산영작(한국제작)
- 7관 광주국제영화제 산영작(한국제작)
- 8관 조용한 세상(154)

금토(2회) 심야상영 · 주제 등(주말 2회)(3시간 무)

◆매주 일 8회, 놀라우 2회(화요일 1회)

◆매주 금曜 800원 할인

◆매주 토요Teen Age Day 죽, 고생 1500원 할인(공연장제작)

◆매주 일 800원 할인(1회 8시부터 8시까지)

</div